

학교의 변신... “각진 건물·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권위적 시설물의 상징이었던 본관 앞 구령대를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바꾼 순천 별량초.



해남 화산초는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을 책장과 영화 감상 공간을 갖춘 포근한 공간으로 꾸몄다.

전남 지역 학교현장에 공간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각진 건물, 네모난 교실 등 획일적이고 딱딱한 학교 공간이 개성 있고 다양한 창의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순천 별량초와 해남 화산초를 시작으로 확 달라진 학교 혁신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도 교육청의 ‘다되는 학교공간’ 혁신 사업은 각진 건물, 네모난 교실 등 획일적인 학교공간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교육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번 공개의 날 첫 행사는 지난 2019년 도교육청의 학교공간 혁신 영역 단위(소규모 공간) 공모에 선

순천 별량초·해남 화산초 등 전남 학교현장 공간혁신 바람
획일적이고 딱딱한 공간이 개성 있고 창의적으로 바뀌어
전남도교육청, 12월까지 35개교 공간혁신 공개의 날 행사

정된 학교가 사용자 참여설계와 공사, 준공, 평가의 과정을 마친 뒤 그 사례와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다.

순천 별량초는 권위적 시설물의 상징이었던 본관 앞 구령대를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바꾼 사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강성운 별량초 교장은 “낡은 구령대가 학생들의 쉼

과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한 것도 만족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과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게 된 것이 더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남 화산초는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을 책장과 영

화감상 공간을 갖춘 포근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조례자 화산초 교장은 “이번에 조성된 도서관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꽃미 책누리실’이라 이름지었다”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두가 함께 협의하고 참여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혁신 공개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공간 혁신은 학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상상으로 교실과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곳곳을 바꿔내고 전남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교육부 ‘K-MOOC 개별강좌 공모’ 최다 선정

‘한국 근대사’ 등 온라인 강좌
우수 강좌 대거 선정
일반인들에도 무료 공개



강혁신 교수

이영란 교수

박진철 교수

조승주 교수

‘한국 근대사’와 ‘공동주택 분쟁 이해’ 등 조선대학교의 온라인 강좌들이 교육부가 뽑은 우수 강좌로 대거 선정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8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한국형 온라인 개별강좌(K-MOOC)’ 대회에서 조선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4개 강좌가 선정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개별강좌’는 ▲이공계 기초 분야·일반화학 개념의 핵심(의과대학 의예과 조승주 교수) ▲한국어(학) 분야·한국 근대사, 김취진 이야기(기초교육대학 자

유전공학부 박진철 교수) ▲자율분야·공동주택 분쟁 이해(법사회대학 법학과 강혁신 교수), 차이나 허스토리(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이영란 교수) 등 4개 강좌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이다.

조선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이공계 강좌는 물론 한국사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공동주택 분쟁 등을 다룬 강좌들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다른 대학들과 차별된 강좌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수강자들의 요구 변화에 맞는 최고의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네이처 인덱스’ 발표 연구경쟁력

거점국립대 3위, 국내 전체 대학 15위

화학 1위·지구환경 2위

거점국립대 1위, 국내 전체 대학 13위를 차지했고 ▲‘지구환경’이 거점국립대 2위, 국내 전체 대학 8위에 올랐으며 ▲‘물리’ 분야는 거점국립대 4위, 국내 전체 17위를 기록했고 ▲‘생명 분야’는 거점국립대 6위, 전체 26위로 평가받았다.

‘네이처 인덱스’는 지난 2016년부터 세계적으로 우수한 82개 학술지를 선정하고, 이곳에 발표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공동저자의 기여도, 소속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평판도 등 다른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초분야 연구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나주고-산단 협의회 회장단
전남형 지역인재 육성 협약

나주공업고등학교(교장 임언택)가 최근 전남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나주지역 산업단지 6개 협의회 회장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주혁신산업단지 협의회, 나주 일반산업단지 협의회, 나주 노안 산업단지 협의회, 나주 평생산업단지 협의회, 나주 동수·오랑캐농공단지협의회, 나주 봉황농공단지협의회 등 6개 산업단지 대표와 전남도교육청 이현희 미래인재과장, 김정선 장학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산업체 동향 및 인력양성 정보 공유, 학생 취업 쳐제공 등 나주지역 산업단지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 협약을 추진한다.

협약식 자리에서 이남 나주혁신산업단지협의회 회장은 “나주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나주공고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력 충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임언택 나주공고 교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교육 방침에 따라 산·학·관이 상생하는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대기업에 매년 많은 학생을 취업시키고 있는 나주공고는 기계과와 전기과 등 3개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래 4차산업 연계학과로 디지털금형과를 스마트팩토리과로 전환하기 위해 공모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 학교·학급 모집

한국신문협회는 ‘2020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학급)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문기자 진로탐색’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신문협회 전국 회원 신문사 기자들이 일선 조·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신문제작과 정 및 기자작성법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실시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1개 학급 규모)가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1~2시간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이날부터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되고, 모집은 선착순 마감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엄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